

지역 매 아리

정읍시, 귀농귀촌위원회 위촉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최근 시장실에서 정읍시 귀농귀촌위원회(위원장 김인태 부시장) 위촉식을 가졌다.

위원회는 당연직 5명과 위촉직 4명 총 9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위원은 김인태 위원장과 농업 관련 부서 과장, NH농협 정읍시 자부 단장 등이다. 위촉직 위원은 귀농귀촌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농업 경영인과 귀농귀촌 단체 임원 등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귀농귀촌의 체계적이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인구 절벽 극복을 위해 도시민 농촌 유치와 자원에 관한 사업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유진섭 시장은 "귀농귀촌 위원들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도시민을 우리시로 유인하는 데 큰 역할을 하시리라 기대한다"며 "정읍인의 특색 있는 귀농귀촌 정책을 펼쳐 귀농귀촌인이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장애인주간 운영

고창군(군수 유기상)은 제 39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15일부터 20일까지 '동행'으로 행복한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이란 주제로 장애인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장애인 주간은 차이가 차별이 아닌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오늘은 고창군 공직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이 고창군 장애인복지관에서 열린다.

17일에는 제39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청소년수련관 소극장에서 지역 장애인과 장애인가족, 장애인관련 기관 단체 회원, 군민 등 500여명이 참석하는 '제39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열릴 예정이다.

기념식은 식전공연을 비롯한 장애인 인권현장 낭독, 기념식 주관단체인 품드래 장애인협회 고창군지회장의 기념사 및 유기상 군수 등의 축사, 모범장애인 4명과 장애인복지에 기여한 단체(고창군여성연합회) 및 개인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특히, 19~20일까지 고창군 장애인복지관(관장 정종만)과 고창장애인 자립생활센터(센터장 천희희)가 주관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고창 어울마당 행사가 열린다.

장애인 작은 예술단 버스킹 공연, 장애인식개선 설문조사, 동료상담과 당사자 인식개선 강좌, 차별금지법 홍보, 장애인 생상품 홍보 판매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행사 및 사랑의 밥차 여행을 통해 500여명에게 식사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명실상부한 농생명식품산업의 수도로 발돋움

고창 한반도 시농대제 19일 개막... 지역 곳곳 행사준비로 들쭉

"어 어 어 어 어허루 상사뒤어" 지난 14일 고창군 도산마을 경로당 앞 흰색 두레 복장을 걸쳐 입고 두건을 쓴 아낙네들이 덩실 덩실 춤을 추기 시작한다. 이들이 흥얼거리는 농요에는 고창의 드넓은 논밭에서 농민들이 두레 활동을 하며 농사일의 고단함을 잊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일상이 담겼다. 길 놀이, 들 나가기, 기원제는 물론 보리 베기, 보리 타작, 모찌기, 모심기, 감매기 등의 과정에서 풍장(풍물놀이)과 함께 농요가 펼쳐져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준다. 고창군 도산마을 한 어르신은 "도산마을은 수십년 전부터 마을 자체적으로 한 해 풍년을 기원하는 천제를 지내왔다"며 "이번 시농대제 때는 마을 어르신들이 함께한 흥겨운 농요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고창군 도산마을을 경로당 앞 흰색 두레 복장을 걸쳐 입고 두건을 쓴 아낙네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한다.

"2019고창 한반도 시농대제"가 닷새 앞으로 다가 온 가운데 고창군 마을 곳곳이 행사 준비로 들쭉이고 있다.

본격적인 한 해 농사를 시작하는 곡우(穀雨) 하루 전인 오는 19일 오후 1시 고창군 고인돌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시농대제(始農大祭)는 총 3부로 나눠 진행된다. 식전행사로 농악과 농요 공연이 흥을 돋운다.

개회식에는 타악공연(똥의 울림), 100세 어르신 세수식과 미디어 퍼포먼스(선택의 땅, 고창), 시농의식(씨앗 심기)으로 분위기를 고조된다.

고창군 김영술 농업정책팀장은 "태초에 씨앗은 가늘고, 조글조글, 뭉텅텅"이라며 "하지만, 이 씨앗에 정성어린 손길이 더해지고 자연과 호흡 하면서 저마다 놀라

우리 만치 다른 개성을 지닌 다양한 꽃으로 피고, 열매로 곡식으로 맺어진다"고 시농의식의 의미를 설명했다.

2부에선 한반도 농생명문화수도 선포식이 이어진다. 도산마을 시농극과 농민대표 100인의 권리장전 선언, 한반도 농생명문화수도 고창 비전 선포식이다.

공개된 비전선포문에선 "고창군은 거석문화의 흔적이 살아 숨쉬고, 한반도 문명이 시작된 곳이다"며 "농생명 식품산업을 살리고, 선택받은 땅 고창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농생명문화수도 고창을 선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고창한반도 시농대제는 그간 타 지역 농업축제에서 등한시 됐던 지역농민을 주제로 했다는 의미도 크다. '농부권리장전 선언문'에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땅을 보전하고 후대에 물려줄 권리 ▲토종 종자를 보호하고 식량주권을 확보할 권

리 ▲땅이 훼손되거나 농업의 가치가 파괴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담겼다.

지역농민 100인이 사전에 쓴 사발문에 행사당일 8개 지역농민단체 대표와 군수, 군의장의 서명식도 진행 된다.

앞서 농경문화 중심의 한반도는 고조선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 제천행사를 열고, 생명의 근원인 창조신과 곡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하지만 고려와 조선시대 때는 "황제만이 하늘에 제사를 지낼 수 있고, 조선은 그러한 권한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중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한반도 농생명 문화 시원지인 고창군이 지역농민들과 울려퍼 우리의 소중한 전통을 살린다는 의미가 크다"며 "이번 한반도 시농대제를 통해 고창군이 명실상부한 농생명 식품산업의 수도로 발돋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농기계임대사업 선진지 위상 확인

베트남 기술인력 정읍 현장 견학

정읍시가 핵심농정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이 세계 개발도상국에 전수되고 있다.

정부의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하 코이카)이 정읍시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국제개발 협력 사업 일환으로(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 베트남 농기계 기술인력 현장

교육을 가진 것. 코이카는 국제개발 협력 사업과 관련, 개발도상국의 인력 교육과 농업기술 보급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앞선 농업기술을 세계 여러 나라에 보급해오고 있다.

코이카는 "정읍시의 농기계임대사업이 농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영농작업 부담을 덜어 줌은 물론 친고령·여성친화형 농기계 임대를 통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농촌의 고령화와 부녀화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선진사례를 세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기 위해 정읍시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현장교육 등을 가져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베트남 농기계 기술인력을 비롯한 관계자 32명은 최근 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현장 교육을 받았다. 교육생들은 임대 사업소 시설을 세심하게 둘러보고 임대 추진방법과 정비 인력 운영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시간도 가졌다.

/정읍=김대환 기자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로 기초질서 확립

권익현 부안군수, 주요 간부회의서 주민피해 없도록 홍보 최선 주문

권익현 부안군수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등에 따른 주민 피해가 없도록 홍보 강화 및 기초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15일 열린 주요 간부회의에서 "오는 17일부터 주민들이 신고요건에 맞게 불법주정차 차량을 국민신문고로 통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운영된다"며 "주민들이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불법주정차 근절과 교통질서 준수 등 기초질서 확립을 통해 제7회 부안미실축제를 2023 부안 세계스카우트캠버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자"며 "이를 위해 우리 공직자들부터 기초질서 확립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부안군은 불법주정차 근절 등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알려 주는 '소통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과태료 부과 전 차량의 자진정지를 유도하는 서비스를 실시해 현재까지 6000여명이 신청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주민들의 교통안전의식 확립을 위해 전문강사를 초빙해 매월 읍면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또 부안경찰서와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을 점검하고 횡단보도 야간투광기, 노후 신호제어기 교체 등을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드는 데 전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권익현 군수는 "정부부처별 2020년 예산을 본격적으로 편성하고 있다"며 "부처 예산편성 단계부터 부안군 현안사업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 달라"고 당부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합의 장 마련

정읍시는 오는 19일 오전 9시 30분 정읍체육관에서 '제16회 장애인 예술제 및 제39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연다.

행사는 (사)전북도지체장애인협회 정읍시지회(지회장 김택진)와 나눔빌(대표 문성하)이 주관하고 정읍시가 주최한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목적이 있다.

1부 행사로 진행되는 장애인 예술제에서는 축하 공연과 함께 지역 내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들이 구성된 9개 팀이 참여해 끼와 재능을 맘껏 발휘할 예정이다.

2부 기념식에서는 어려운 여건에서 장애를 극복해 타의 모범이 되는 장애인과 평소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시상도 이어 축하사와 기념촬영 등도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민과 장애인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귀농귀촌 사업선정 심의회 개최

도시민 유치지원 사업 적극 추진

부안군은 최근 부안군청 3층 간부회의실에서 부안군귀농귀촌심의위원회 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귀농귀촌 지원사업 및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 대상자 선정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회는 귀농인의 성공적인 농업 경영과 농촌생활에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부안군이 소득을 창출하는 농촌으로 육성하기 위해 6개 사업 30개소에 2억 36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의 적정대상자를 선정했다.

부안군귀농귀촌 심의위원회는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을 심의하고 있으며,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등 귀

농인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병순 심의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안군은 올해 도시민 유치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귀농인의 정착에 가장 큰 걸림돌인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귀농인의 집과 체재능력 향상 실습농장을 운영하여 귀농인들이 우리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행정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귀농·귀촌인들의 조기정착과 소득안정 등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수요가 많은 사업에 역점을 두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a bottle of wine and several gift sets.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and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Experience the taste of mulberry wine with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There are also images of a cartoon bear mascot and various gift set options with prices.